

출마 예상자들 체급 '우수'

제21대 총선 누가 뛰나? 최종 - 김제 · 부안,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김제 · 부안
이곳은 3년 전 국민의당 바람을 탄 김종희 후보(53)가 민주당 3선 김춘진 의원(66)을 제치고 승리해 파란이 불렀던 지역구다.
김 의원은 비록 초선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능력이 오히려 다선의원들보다 월등하다는 입소문을 지역민 사이에 받고 있다.

그의 최대 강점은 농업관련 법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들과의 두터운 소통으로 꼽힌다.

이에 맞설 대항마는 민주당 김춘진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석패한 뒤에도 당 최고위원과 도당위원장 등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지역을 챙겨왔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김 위원장 4선 도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자못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49)와 문철상 전 신협 중앙회장(68), 유대희 변호사(64), 심보규 전 행정안전부 차관(58)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부지사는 송하진 도지사의 최측근이다.
송 지사가 전주시장 때 비서실장

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근거리에서 송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경민 지역위원장(66)이 정의당에선 강상구 당 교육연수원장(49)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제 부안

김종희 대항마로 김춘진 유력 이원택 정무부지사 등도 거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민주당 경선에서 안호영

박민수 · 유희태 경쟁 예상

민주당 후보에 맞설 경쟁자로

임정엽 평화 도당위원장 꼽아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전주병의 정동영-김성주, 남일입 실순창의 이용호-이강래-강동원의 '죽음의 조'가 있다면 완무진장에

는 안호영-박민수-임정엽과 혈전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 경선에선 현직 안호영 의원(56)과 박민수 전 의원(56), 유희태 민들레 포럼 대표(66)의 당내 경선이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도당위원장인 안 의원은 프리미엄을 안은 조직력에 자신감을 안고 있지만, 박 전 의원 역시 의정 시절 관내 900여 마을을 방문하며 인지도 높은 전력이 있는 만큼 양자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반면 유 대표는 오랜 기간 지역에 상주하며 꾸준히 표밭을 다져온 성실함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유 대표는 지난 경선에서 박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할 정도의 득표력을 갖고 있어 지역내에선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맞설 경쟁자는 평화당의 임정엽 도당위원장(60).

임 위원장은 여타 수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갖춘 인물이다.

로컬푸드 전도사로 정평이 나있는 임 위원장은 전북도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완주군수를 역임했다.

한국당에선 신재봉 당협위원장(67)이 무소속으로 김정호 변호사(63)가 물망에 오른다. /고민형 기자



'어르신이 행복한 아름다운 노후보장'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이 지난 30일 임실군 운수로 33번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이 지난 30일 임실군 운수로 33번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편견기사 11면>

도, 2022 아태마스터스 유치신청서 공식 제출

전북도는 지난 30일 2022년 아태마스터스 유치를 위한 최종 행정절차로 유치신청서를 국제기구(IMGA: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에 공식 제출했다.

도는 마스터스대회가 중·장년층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시대흐름에 맞는 국제대회라는 점과 생활체육분야 국제종합대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임에 초점을 두고 지난 2018년 6월 대회 유치선언을 공식화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유치팀 조성에 나섰다.

도는 특히 마스터스대회는 가족·지인과 함께 참여해 관광·휴양을 즐기면서 등록비와 체재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대회로 숙박·음식 등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경기시설, 운동장, 체육관, 대학·학교 체육시설, 클럽)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절감 효과가 크다는 논리로 국제대회 승인을 받

기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왔다.

도의 이같은 노력으로 2018년 10월 대한체육회 심의 통과와 11월 전북도의회 유치동의안 통과 후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와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공식 국제행사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최종 개최 결정전까지 개최 결정권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유치의지 및 대회 개최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지난 30일 '2019년 전라북도 재정공시(2018년 회계연도 재정운용)'를 통해 2018년도 도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2018년 세입 결산 총 규모는 6조 8,847억원이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2173억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4조366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조3011억원이다.

지방세는 1조 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2억원(5.2%)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 355억원, 등록면허세 84억원 증가 이중 취득세 5333억원(48.9%)과 지방소비세 2998억원

재정공시로 지난해 전북도 살림살이 공개

도, 도민 1인당 지방세 59만원 걷고 289만원 지출... 사회복지비 주민 1인당 101만원 지출

(27.5%)가 가장 큰 비중(76.4%)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9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5000원 증가했다.

2018년 세출 결산 총 규모는 6조 5794억원이다.

이는 전년 6조2402억원보다 3392억원(5.4%)이 증가한 규모이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1조3805억원) 분야

가 35.1%, 농림해양수산(9463억원) 17.9%, 일반공공행정(4317억원) 8.2%, 환경보호(3389억원) 6%, 문화및관광(3149억원) 5.9% 순이다.

주민 1인당 지출액은 289만원이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광역단체 평균 227만원 보다 62만원이 높다.

사회복지비는 주민 1인당 101만 3천 원으로, 사회복지비중 35.1%는 전국

지자체 평균(31.6%) 보다 3.5% 높다.

도 채무액은 전년 7437억원 보다 442억원이 감소한 6995억원이다.

채무액이 감소한 이유는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 채무액은 자동차이전 등록과 각종 계약 체결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분이 전체 금액이며, 외부 차입금은 없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전년 40만원 보

다 2만원 감소한 38만원이다.

그 밖에 도민 관심이 많은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지방세 등 체납액은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한 254억원이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7000만원으로 광역 지자체 평균(7300만원)보다 300만원 낮다.

도 공유재산은 전년 보다 1477억원이 증가한 13조 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로·하천 등 공공사업용지 매입, 칠보지역대 양공장 설치,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추진, 전북개발공사 유가증권 취득에 따른 것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집계 산

정 중에 있어, 9~10월에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재정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집행 평가 대상 수당 등 재정분야 주요 평가에서 15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경비가 발생 않도록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 조정을 강화하고, 체납액 축소, 탈투·은닉세원 발굴,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의 영구적 보전 건의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희망의회!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가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